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발행인: 김태근 베드로 주임신부 / 편집: 홍보분과 / 교육관•사제관: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 전화: (302) 998-7609
Homepage: www.delawarekcc.org / Email: delawarekcc@gmail.com

2019 년 2 월 24 일 (다해)

연중 제 7 주일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평일미사	성월이 있는 달 (3,5,6,9,10,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교육관 성당		
성시간	성월이 있는 달 첫째주 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성서 100 주간 모임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성당		
레지오 마리애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성월이 있는 달 (3,5,6,9,10,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후 교육관 성당		
Youth Group 모임	주일미사후 St. Paul's 사제관 2 층		
고해성사	미사 전	봉성체	신청시
유아세례 및 축성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998-7609	☎ (215) 313-8854	☎ (302)893-4569, ☎ (302) 893-8002

**** 오늘의 전례 ****

[입당송] 시편 13(12),6 참조
주님, 저는 당신 자애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대영광송>
[제 1 독서]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26,2.7-9.12-13.22-23
[화답송] 시편 103(102),1-2.3-4.8 과 10.12-13(◎ 8 ㄱ)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5,45-49
[복음 환호송]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27-38
[영성체송] 시편 9,2-3
주님의 기적들을 낱낱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입 당 446 번 우리는 주의 사랑을
봉 헌 217 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성 체 152 번 오 지극한 신비여
188 번 천상의 양식
파 견 415 번 사랑이 없으면

미 사 전 례						
날 짜	2 월 24 일	3 월 3 일	3 월 6 일	3 월 7 일	3 월 10 일	3 월 17 일
전 례 력	연중 제 7 주일	연중 제 8 주일	재의 수요일	재의 수요일 다음 목요일	사순 제 1 주일	사순 제 2 주일
해 설	공정임	박상진	수요미사 성시간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성당	목요미사 성시간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오전 11 시 교육관	박 건	윤성숙
제 1 독서	권민숙	강영길			강일호	강주현
제 2 독서	권의진	권향자			김승희	오진희
예물 봉헌	김혜민,정캐롤	이창민,김민주			김혜원,송민우	이혜민. 홍성호
복 사	권의진 가정	강영길 가정			강선유,강지유	강주현, 오진희
친 교	권의진 가정	강영길 가정			강일호 가정	강주현가정

연중 제 7 주일

[가톨릭신문-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특별기획]

'가정사목과 복음화' 4. 빈곤과 가정

실직 등 생계불안에 흔들리는 가정… 긴급 사목 대상으로
IMF 이후 늘어난 실직자 이혼 등 가정 해체로 이어져
한국사회 양극화 심화되고 피폐한 삶은 가정 존립 위협
경제 위기 후유증 계속돼
강우일 주교 시노드 참석 후 "가난 속에서 탈출구 못찾은 많은 보금자리에 금이 가"
한국교회, 시노드 예비설문에 "물질 문화 지배받는 사회 사람들 가정 밖으로 밀어내"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시노드) 제 3 차 임시총회 최종 보고서는 가정 안에서의 체험이 얼마나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인지를,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이미 저녁이 내리고 있습니다. 기꺼이 집에 돌아가 같은 식탁에서 깊은 애정과 주고받는 선(善)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만남을, 그리고 해가 저물지 않는 축제의 날을 선취하는 좋은 포도주를 다시 만나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꿈과 계획이 흩어지는 씁쓸한 저녁에 자신의 외로움과 일대일로 마주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괴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념과 포기, 원한의 악순환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까? 얼마나 많은 집들에 기쁨의 포도주가 없고 생명의 맛이 사라졌습니까?"

빈곤 가정일수록 위기에 취약

일반적으로 가족해체의 지표는 이혼과 별거, 가족원의 가출, 자녀 양육 포기, 가족원의 자살, 가정 폭력,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의 악화 등을 포함한다. 가장이 실직한 가정은 이러한 지표들이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빈궁한 가정일수록 경제 위기에 취약하고 그 결과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해체 가능성이 다른 어떤 가정보다 높게 나타난다.

문제는 IMF 등 일정 시기 극도로 긴급했던 사회 경제적 현실이 야기한 가정의 구조적·기능적 붕괴 현상이 고착화되고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이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보편화돼 있는 핵가족 제도 아래에서는 사실상 약간의 충격만으로도 가족의 와해가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흔들리는 핵가족'에게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 실업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빈곤의 문제는 가정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1990 년대말의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위기 탈출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가까스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하지만 이후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 고착된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내기 시작했다. 사실상 한국 사회의 중간층을 이루고 있던 중산층 계층이 몰락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그리고 이는 곧 부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낸다.

이두휴 교수(미카엘·전남대 사범대)는 경향잡지 최근(2 월)호에서 가정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 교수는 경제우선주의와 입신출세주의 교육관, 성장제일주의를 지적하면서 무한 욕망으로 자본을 확장하려는 부유층, 벗어날 수 없는 가난에 시달리는 빈곤층으로 우리 사회가 갈려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빈곤층의 피폐한 삶이 가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한국사회는 1997 년 IMF 구제 금융 이후 2008 년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다시 한 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2008 년 이후의 경제 위기 상황이 오히려 더 힘들고 긴 고통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 특히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들은 또 다시 해체의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가난한 가정들 사목대안 마련

한국 교회가 지난해 주교시노드를 앞두고 교황청에 보낸 '예비문서 설문에 대한 한국교회 답변'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적 고도성장을 거쳐 온 한국사회는 경쟁적이며 자본주의적 물질 문화에 지배되고 있다. 지나친 입시 경쟁과 사교육 중심 교육 환경, 맞벌이 부부의 증가, 비정규직과 조기퇴직으로 대표되는 고용 불안정, 경제적 양극화의 증가, 부실한 사회 안전망 등은 사람들을 가정 안으로 모이게 하기보다는 가정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주교시노드에 참석했던 필리핀의 타글레 추기경은 시노드를 마치고 나서 언론들과 가진 회견에서 이번 주교시노드는 이혼 후 재혼자에 대한 영성체 수여라든가 동성애 결합에 대한 토론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했다. 타글레 추기경은 특별히 아시아에서, 빈곤이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주된 관심사였다고 분명히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들이 모여 이룬 가정은 오늘날 가정사목의 가장 긴급한 배려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역시 시노드에 참석하고 돌아온 강우일 주교(제주교구장)는 시노드 참석 주교들이 지적한 문제 의식들을 소개하면서 "많은 가정이 가난과 실직 등의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덕이며 살다가 보금자리에 금이 간다"고 개탄했다.

타글레 추기경이나 강 주교의 지적처럼, 그리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정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전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묘사에서 나타난 바대로, 교회는 고통 받는 가난한 가정들에 대한 사목적 대안 마련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9 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오늘(2 월 24 일) 성당 보수 공사 기금마련을 위한 2 차 헌금이 있습니다.
■ 오늘 (2 월 24 일) 가족 전례 및 친교봉사 가정은 권의진 빈첸시오•권민숙 젬마 가정이고, 미사시작전 이 가정을 위해 묵주기도 1 단을 바칩니다.
미사후권의진 빈첸시오•권민숙 젬마 가정에서 준비하는 다과친교가 St Paul's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성지가지 회수
지난 한해 성지 주일에 축복하여 나누어 드린 성지가지는 각 가정마다 십자가에 꽂아서 주님의 거룩하신 승리와 존경의 신앙 고백으로 살아왔습니 다. 이제 다시 맞이할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성지가지를 회수합니다. 오늘(2 월 24 일)까지 성당 입구에 있는 수거함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도라지 바자회
주문하신 물건은 오늘(2 월 24 일) 미사 후 St. Paul's 성당입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구역장님들께서는 신청하신 구역원들 주문금액을 모아서 주시면 김혜영 에스더 자매님께서 주문물품 구역별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정기 사목회의
오늘(2 월 24 일) 주일미사후 St. Paul's 사제관에서 정기 사목회의 있습니다.

■ CRS Rice Bowl (사순저금통)
CRS(Catholic Relief Services' Lenten program to pray, fast, learn and give) Rice Bowl 이 성당입구에 준비되어 있으니 챙겨가시고, 사순 시기 마지막 주일인 4 월 14 일 (주일) 까지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벼룩시장
일시•장소: 매주 미사후 친교때 St. Paul's 사제관
미사후 St. Paul's 사제관에서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 도네이션하시고, 필요한 분들은 원하시는 금액에 구입하시면 됩니다. 판매 수익금은 성당 보수공사 기금으로 쓰이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가족 전례 및 친교 봉사 순번
가정별로 2 주간 미사전 후에 간단 한 전례교육이 있습니다. 해당 가정 전례봉사 담당(독서자, 복사) 명단은 해당 구역장님과 상의 하셔서 전례분 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례봉사	봉사가정	전례교육
3 월 3 일	강영길 가정	2 월 24 일 미사후, 3 월 3 일 미사전
3 월 10 일	강일호 가정	3 월 3 일 미사후, 3 월 10 일 미사전
3 월 17 일	강주현 가정	3 월 10 일 미사후, 3 월 17 일 미사전
3 월 24 일	김광수 가정	3 월 17 일 미사후, 3 월 24 일 미사전

가족 친교 봉사 준비 대행 서비스(도넛 또는 빵, 다과구입)가능하니 총구 역장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3-3608

■성월이 있는달 (3, 5, 6, 9, 10, 11 월)에 평일미사와 첫째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미사후 성시간 있습니다.

3 월 성요셉 성월			
	수요미사	목요미사	성시간
날짜	3/6, 3/13, 3/20, 3/27	3/7, 3/14, 3,21, 3/28	3/6, 3/7
시간	오후 7 시 30 분	오전 11 시	
장소	St. Paul's 성당	교육관 성당	

■재의 수요일
3 월 6 일 수요미사가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성당에서 성시간과 함께 있습니다.

■목요미사
3 월 7 일 목요미사가 오전 11 시 교육관에서 성시간과 함께 있습니다.

■Daylight Savings Time
3 월 10 일 부터 Daylight Savings Time 이 시작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신자 성경필사: 4 대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어록
기간: 2018 년 10 월부터~2019 년 부활까지
대상: 전신자

■시순 순례행사
Pilgrimage 2019: Journey to the Kingdom
Saturday, April 13, 2019, 10am-6:15pm, City of Wilmington
참여하시고자 하는 청소년들은 St. Paul's 성당 입구에 구비한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청소년분과장 유진희 글라라님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s://www.cdowcym.org/events/detail-ya/pilgrimage-2019-journey-to-the-kingdom 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월 구역별 성당청소

3 월 3 일	3 구역
3 월 17 일	4 구역
3 월 31 일	5 구역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우숙자 아네스
생미사	김나영 줄리아나, 이신애 율리아세실리아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1 차 헌금: $ 373
2 차 헌금: $ 208

성당 보수 공사 기금 모금 현황 (총액: $ 6,188)
지난주 총액($5,970), 2 차헌금($208), 벼룩시장 판매금($10)

교무금: 김국제(2 월), 민병묵(1, 2 월), 송정섭(2 월), 이행복(1, 2, 3 월), 임용주(2 월), 한기석(2 월),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장 이상헌 요한 ☎ (302) 893-4569, 부분과장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893-8002 님께 **수요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 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